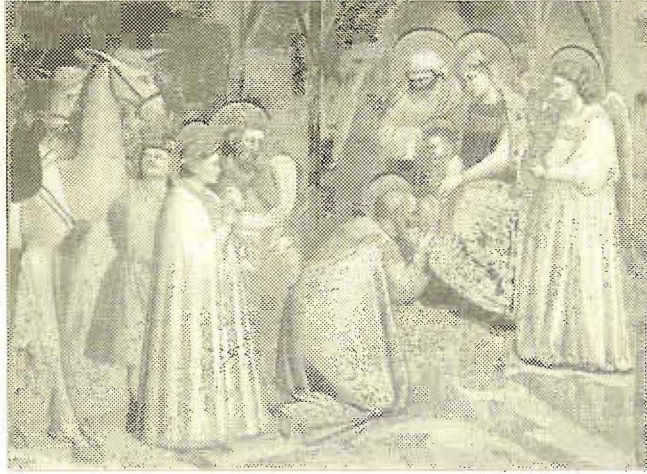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공현 대축일
제33권 6호(다해) 2013.1.6

[묵상]



동방박사의 경배 <Giotto di Bondone, 프레스코, 14c>

머나먼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믿음의 길을 떠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빛과 함께 했기에
미지의 여정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강보에 싸인 아기는
왕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모습이지만
아기 예수님의 겉모습에 전혀 실망하지 않고
준비한 보물로 왕께 대한 경배를 바칩니다.
그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었는지 모르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귀한 선물을 바쳐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새로운 믿음과 기쁨을 안고 돌아갑니다.
그들의 길을 밝힌 별의 인도를 믿었기에,
초라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믿었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물을 받았습니다.

빛을 볼 줄 모르는 저희들이기에
어둠속의 길을 불안히 걷는 저희들에게,
구세주께 합당하게 드려야 할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고 있는 저희들이기에
믿음과 기쁨을 잃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메시아의 빛을 보고 먼 길을 떠날 줄 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봉헌 할 줄 아는
동방에서 온 그들이 부럽습니다. -框-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염고도 마리아, 허정자 레지나 & 허동수 루스
특 전 미사	(생)김다니엘, 임순 테레사, 임정빈 보스코, 김낙기 바오로, 김유한 요한, 이승찬 라파엘
주 일	(연)이경용 야고보, 이현호 요한, 이덕철 루카, 김풍길 바오로, 강양근 요셉,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박준구 요한, 박용진 & 서복생, 김중환 야고보
낮 미사	(생)이윤조 클라라, 이순자 비비안나, 강순복 요세피나, 송기분 수산나, 이경수 헬레나 & 이정현 가정, 이지원 글라라 가정, 이정자 아그네스 & 이병우 마리아, 이상훈 프란치스코 가정, 김정웅 요한 & 김춘자 막달레나, 손선남 레나타 & 손세호 시몬 가정, 민기남 모니카, 유영균 우르바노 & 유명련 마리아, 유은영 아네스, 이남현 막시모 & 이정아 리디아 & 주은 아네스 가정, 민석준 토마스 & 미애가정 & 민영준 마르코, ME가정, PV구역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사(Isaiah) 60,1-6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 들 이 당신을 경 배 하리 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시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시나이다.○

제 2독서 에페소(Ephesians) 3,2.3.5-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02	142	102
봉헌	364	256	269
성체	이 아기 누구일까	307	284
파견	동방의 세박사	148	14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 말씀과 성소들

여기에서 우리는 제2차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하나를 건드리게 됩니다. 공의회는 모든 신자가 각자 자신의 생활 신분 안에서 성덕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덕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레위 11,44; 19,2; 20,7).

바오로 성인은 그 그리스도론적 기초를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에페 1,4). 로마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에게 한 바오로의 인사는 우리 각자를 향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로마 1,7)

가) 하느님 말씀과 성직자

78). 가장 먼저 교회의 성품을 받은 성직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말씀의 봉사자인 착한 목자의 마음을 기르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주교, 신부, 부제들은 성화를 위한 단호하고 쇠신된 노력 없이는 그들의 성소와 사명을 살아갈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러한 성화를 위한 기동들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접하는 것입니다.

79). 주교직으로 부름 받아 첫째이고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된 이들에게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인 「양 떼의 목자」(Pastores Gregis)에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주교가 자신의 영성 생활을 기르고 발전시키려면 “첫째가는 것은 하느님 말씀의 봉독과 묵상입니다.

모든 주교는 '성도가 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며 유산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의 말씀에'(사도 20,32 참조) 자신을 맡겨야 하며, 또 맡기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주교는 그의 사제들과 함께, 사실 모든 신자와 마찬가지로, 또 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교는 마치 어머니의 태와 같은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의 보호를 받으며 말씀에서 자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계속>

진정한 '스타'가 됩시다.

가까이에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을 곁에 두고서 가족처럼 서로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표현도 바뀌게 된 것이겠지요. 사실 어떤 집에서는 개나 고양이가 가족 못지않은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과 한 식탁에서 먹고, 잠도 사람과 함께 잡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동물과 똑같이 되기를 원할까요? "개가 그렇게 좋아? 그럼 똑같이 개가 되면 어때?"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고 화를 벌컥 낼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1코린 2,9) 일을 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지상의 수고로운 자리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요한 1,1),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요한 1,14) 이 엄청난 사랑의 신비를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6-7)

주님 공현 대축일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물어 물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호화로운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런 예수님을 찾아뵙고 매우 기뻐하면서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칩니다.

우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사랑 때문에 낮아지신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 뵙고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지닌 소중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바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자신이 지닌 소중한 것,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그분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 기쁨에서 힘을 얻어 하느님과 세상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소유와 집착에 빠져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나는 '별', 진정한 '스타'가 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머무름-

"인간은 자기 의지와는 달리
세속적인 재물을 잃을 수 있지만,
자기 의지가 아닌 이상 결코 영원한 재물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권순길 채칠리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송현식 바오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공헌 대축일

오늘(1월6일)은 '주님 공헌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헌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과 미국교회에서는 매년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개학
 - 성탄과 송년, 새해맞이를 끝내고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오늘주일(6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이해진 마음을 가다듬고 학생미사에 늦지않도록 준비합니다.
- ◆ 홈페이지 참여행사 '새해맞이 나의 신앙다짐' 5행시 공모
 - 공모시기 : 1월5일~31일까지
 - 5행시 각첫글자(주제) : 백 · 삼 · 위 · 성 · 당
 - 공모방법 : 백삼위성당 홈페이지(www.103skcc.org)에 있는 자유게시판에 올리십시오.
 - 상품 : 1등 전기밥솥, 2등 고급핸드백, 3등 커피세트
 - 시상 : 사목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2월3일 발표
 -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홍보분과장 ☎(310)594-9472
- ◆ 자동차 축복식
 - 일시 : 오늘 주일(6일) 낮미사 후 12시30분
 - 장소 : 사제관 앞마당
- ◆ 주님 봉헌 축일 ...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오는 2월2일(토)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30일(수)까지 성물부 김막달레나 또는 사무실
 - 봉헌미사 : 2월2일(토) 오후 7시

- ◆ 예비자 교리반 개강
 - 개강 : 1월10일(목) 오후 8시
 - 신자 재교육을 겸하고 있는 교리반에 일반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이영석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 구역장 /반장 단합 모임
 - 일시 : 1월6일(주일) 오후 6시
 - 장소 : 토런스 아서원
 - 문의 :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부장 ☎(310)808-5005
- ◆故이태석신부 추모미사 및 아프리카 희망후원회 보고회
 - 일시 : 1월12일(토) 오후 5시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2040 Artesia Bl.)
 - 진행 : 추모미사, 추모음악공연, 후원회활동보고회
 - 후원회 이사장 김해원 가브리엘 신부
 - 문의 : ☎(310)617-3110
- ◆ 백삼위 한국학교 30주년 축하기념패 받았습시다.
 - 미주한국학교연합회가 백삼위한국학교 설립 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패를 증정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음식물쓰레기를 성당밖 휴지통에 버립니다.
 - 2층 각교실과 회의실, 강당 등에서 모임을 갖는 여러단체의 교우들께서는 먹고난 음식물 찌꺼기나 음료수가 든 컵, 접시 등을 실내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옥외 쓰레기통을 이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선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는데 서로 협조합시다.☺
-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성물판대대에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한번 둘러주세요.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6일(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주일학교(K/1학년 카레라이스)
- 1월13일(주일) : 토런스 서1반(소고기무국 \$3)
주일학교(12학년 스파게티)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일선 서성용 윤석봉 이용무 최진수	김정희 송호창 윤선희 정남형	김주량 신중철 윤희동 조영희	김창규 오명섭 이석진 조화숙	김재희 오영섭 이숙화 최길주	박상원 유영균 이영석 최재은
						합계 : \$6,135
주일미사헌금(29,30일) : \$2,893(29,30일)						
성탄미사헌금(24,25일) : \$3,839	구유예물 : \$4,376					
성전헌금	김정희 오명섭 이용무	김주량 오영섭 조소영	김재희 유영균 조영희	서성용 윤선희 조화숙	송호창 이석진 최재은	신중철 이숙화 최진수
						합계 : \$2,625
감사헌금 : 서예반 하버/카슨시니어아파트						
달력광고후원 : \$45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 매월 첫째주일 학생미사 Jim Anguiano 신부님이 집전
- 새해부터 매월 첫째주일 학생미사를 Jim Anguiano 신부님께서 집전해주십니다. 신부님은 현재 가디나에 있는 신학생 기숙사(후안 디에고) 소장으로 계십니다. 신부님 환영합니다. 셋째주일 학생미사는 현재대로 St. 마가렛매리 본당 신부님께서 집전해주십니다. 그리고 St. 제임스 성당에 계신 이요한 신부님께서서는 비정기적으로 학생미사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 주일학교 견진교리를 위한 Lock-in

- 일시 : 2013년 1월5일(토)~6일(주일)
청소년 신앙대회 후 견진교리공부의 일환으로 본당에서 Lock-in 행사가 있습니다.
- 대상 : 9학년 기초반, 10학년 견진반
- 준비물 : 슬리퍼, 두꺼운옷, 성경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교사 ☎(310)744-5878

◆ 주일학교 앙상블 창단 및 단원 모집

- 대상 : 5학년~12학년
- 접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213-258-8665) 또는 e메일 접수 pius103ss@gmail.com

◆ SAT II한국어 시험 준비반 모집...2월첫주부터 수업

- 대상 : 현재 8학년~11학년
- 신청 : 오늘주일(6일)부터 한국학교 교사실(2층)에서 상담 및 반배정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교장 ☎(310)464-7490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시작 : 오늘 주일(6일)부터 받습니다.
* 등록금 : 첫째아이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아이 수업료 면제 *대상 : K~12, SAT II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4학기 강의 안내

- 주제 :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 2'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2013년 2월8,9,10일(금토일 저녁시간)
- 장소 : LA 성아그네스 성당(2625 S. Vermont Ave.)
- 대상 : 신자 및 일반인 모두 환영
- 수강료 : \$50
- 교재 : 비참과 자비의 만남(송봉모 신부 저)
- 등록문의 : 김크리스티나 ☎(323)896-7525
- 주관 :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사우스베이 러닝팀 회원모집 안내

- 장소 : 토런스 사우스 하이스쿨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건강을 위해서 걷는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소공동체 새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오신재 데히틸다 213-675-0498 1/11(금) 오후 7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12(토) 오후 6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18(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이진향 아네스 989-0366 1/19(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신재은 클레멘스 999-5808 1/12(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유선희 로사 710-8416 1/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1/18(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림 마르시아 634-6923	안혜진 세레나 634-6923 1/10(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12(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999-1448 1/12(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이근모 마리노 518-6142 1/12(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최재은 베드로 377-0345 1/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11(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성미선 리디아 944-4577 1/12(토) 오후 5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8(화) 오전 10시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모임의 날	
----------	--

2013년 신년 메시지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3년 새해를 맞아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선포하신 '신앙의 해'로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해를 보내는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류와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마태 22,37-40)

올해 특별히 우리 주위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는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소외된 이웃'의 모습도 조금 더 다양해졌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우리도 자주말하고 실천한다면 '이웃 사랑'의 계명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우리가 한 해 동안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지침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받은 이시간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살 때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은총을 덩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쁘고 희망찬 새해,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염수정 대주교

☞ "주일미사만 겨우 참석하고 생활 속에서 복음 실천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든, 부인하든 분명한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지나온 인생, 어느 순간 하느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때 당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 영혼에 인호를 새기셨습니다. 인호는 당신이 하느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증입니다. 비록 지금은 당신의 부족함에 신자라 말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세례는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표지인 일곱 가지 성사(聖事)중에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세례성사'를 받으므로써 당신의 삶은 위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천 년전 베들레헴의 작은 동굴에서 메시아의 탄생이 새로운 인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듯이,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준 '세례성사'는 당신을 새로 태어나게 했으며, 삶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게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과거의 해묵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인간을 입은 당신은 세례를 통해 원죄와 개인적인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 삶의 근원이자 목적이신 하느님과의 계약이며,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는 신앙의 씨앗을 영혼에 뿌리는 은총의 성사입니다. 이 놀라운 초대에 선택된 당신이지만

그 신앙의 씨앗을 잘 관리하며 키워가는 것은 소중한 과제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그 씨앗이 당신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햇볕에 타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학과 문명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미명 아래, 당신 행복의 초점을 넘겨놓은 빵과 풍요로운 물질에만 맞춰 놓아 그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숨 막히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습니까?(마태 13,1-23 참조) 하느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으며 태어난 그리스도인! 당신의 참모습을 위해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참 행복에서 멀어지게 했던 피상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뿌려주신 씨앗을 튼튼하고, 성실하게 키울 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더욱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받은 신앙을 더 깊이, 더 굳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견진성사'입니다. 즉,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받는 성사이며, 이 땅에 천주교를 뿌리내리게 한 수많은 순교 선열의 믿음처럼 죽음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강한 신앙을 위한 성령의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당신 안에 성령의 선물(갈라 5,22)을 증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굳게 결합시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으므로써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고 그리하여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교 신자이며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